

현대 한국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단 담론 연구*

이 유 나**

1. 서론
2. 이단론의 등장과 확산
3. 이단 계보와 예방학
4. '이단들'의 반격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전개되는 정통과 이단 담론들을 분석하여 그 종교학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사적 전개에 있어서, 이단 구별을 통해 정통의 정체성을 마련해왔다.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급부상하며 제도종교의 기틀을 마련하던 그리스도교는 공의회(Council)의 결의로 정통 교리를 확립해 나아갔고, 이는 수많은 다른 목소리를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단'은 예전의 교회가 규정했던 이단과 닮은꼴이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이단을 명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교의 종파 가운데, 개신교는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다. 성경을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는 개신교는, 내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상부 조직이 없다. 성경의 최고 권위를 부여한다는 기치 하에 성경의 다양한 해석을 엿볼 수 있는 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288)

** 건양대학교

2 종교와 문화

파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정통이 개신교라는 텃밭 아래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리스도교의 다른 종파들에 비한다면, 정통과 이단의 담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종교 가운데 정통과 이단 개념은 개신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현대 한국 개신교의 이단 담론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단이라는 타자 이해를 통해 결국 정통이 가진 자기 이해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의 이단 관련 연구는, 주로 개신교 신학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신학교의 석사 학위 논문들을 필두로 하여, 신학자 및 이단 전문가들의 이단 연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이들은 규범적인 판단 전제 하에 이단을 연구하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¹⁾ 한편, 종교학의 분야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정진홍의 「정통과 이단의 논의」, 이진구의 「한국종교사의 자리에서 본 기독교계 신종교」, 조현범 「사이비 종교론에 대한 성찰: 진짜 종교, 가짜 종교」 등이 있다.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지만, 개신교의 정통 이단 담론이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종교학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개신교와 개신교계 신종교들 간의 담론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단론의 등장과 확산

1) 이단론의 등장: 구별하기

1) “이단의 역사는 창조 이후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통해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한 신학자의 주장은, 이단에 대한 신학적 전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윤종훈, 「이단 종파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이단 구별 방법」, 《역사신학논총》 18집,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9, p. 149.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사회학자인 김홍수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김홍수는 이단이 규범적인 타자라기보다는 한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홍수, 「이단 또는 한국적 기독교: 통일교·전도관·용문산기도원의 종교운동」, 《종교와 문화》 제2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pp. 15-36을 확인할 것.

본래 ‘이단(異端)’이라는 용어는 유교 사회에서 ‘불교’나 ‘도교’ 등을 헛된 가르침으로 규정하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천주교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용어의 규정을 가장 간단히 살펴보는 방법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전들에서 ‘이단’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파리의방정교회 소속 리델(Félix-Clair Ridel) 주교가 1880년에 편찬한 <한불사전(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의 이단 항목의 뜻은 ‘미신(superstition, oeuvre de superstition)’을 의미했다. 이후 개신교 선교사였던 게일(James Scarth Gale)이 만든 1911년의 <한영사전(A Korean-English Dictionary)>의 이단 항목은 조금 다른 의미가 등장하는데, 한영사전의 이단 항목은 ‘헤레시(heresy)’ 즉 정통에 어긋나는 교리를 의미하며 ‘미신’을 지칭한다. 비슷한 이단 항목인 ‘이단지도(異端之道)’는 1. ‘정통 교리에 어긋난 가르침(Heretical teaching)’과 2. ‘미신의 교리들(doctrines of superstition)’을 의미했다.²⁾ 이단은 그리스도교의 출현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교리에 반하는 것이자 미신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서서히 변했다.

우선 전래 초기 개신교는 타종교를 미신(superstition) 범주로 이해했다. 개신교 유입 이전에 존재했던 타종교와 사회적인 악습들은 모두 계시의 종교인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었다. 이는 종교가 아닌 미신이며 문명이 아닌 비문명의 범주에 해당했다. 유교는 구시대의 쓸모없는 윤리였고, 불교는 부질없는 철학이며, 샤머니즘은 미신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깊은 악습이었다. 개신교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이러한 담론들을 유포시켰고, 실제로 개신교인이 되기 위해선 이들과 철저히 결별해야만 했다. 타종교뿐 아니라 이미 전래된 천주교와도 처음부터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졌다. 천주교는 불란서의 종교이자 문명과 상관없는 종교였던 반면, 개신교는 미국의 종교이자 문명의 종교라고 스스로를 명명했다.

전래 초기 개신교가 타종교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마련했다면, 이후 개신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단’ 논의가 시작된다.³⁾ 초기 이단 논의는 주로 한국인 개신교 지도자들의 종교성을 판단하고

2) 부산대학교의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 사전 <http://corpus.fr.pusan.ac.kr/dicSearch/search.aspx>에서 검색.

3) 한국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 출신이었고 장로교, 감리교 등의 공인된 교파 소속이었던 것과 달리, 이른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종교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단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당시 먼저 진출했던 교파들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에 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에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는 제7일 안

4 종교와 문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생적으로 형성된 내부 지도자들의 신비 체험 및 신비주의적인 행위 등이 문제시 되었다. 1930년대 초반 부흥사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이용도는, 설교 및 의례 주도 방식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리교에서 휴직 처분을 받았고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백남주, 한준명, 이호빈 등도 함께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들은 원산에서 예수가 친히 임했다고 주장하던 유명화(劉明花)와 평북 철산에서 새주(主)를 자칭하는 김성도(金成道)라는 여인 등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⁴⁾ 이들은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borg)나 선다 싱(Sundar Singh) 등의 천계 체험자들의 책들을 읽고 자신들의 신비체험과 연관시키며 새로운 종교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장로교 총회에서 신비주의라는 명목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이들은, 1933년 예수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했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지만, 이후에도 '신비주의'라는 이단 계보의 선조 역할을 하게 된다.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독특한 의례의 출현은, 결국 이단의 첫 출현이라는 의미만을 가진 채 역사 속에 봉인되었다.

주류 개신교는 신학적 성서 해석에도 정통과 이단의 구분법을 사용했다. 내부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인 성서 해석은,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무오류를 주장한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⁶⁾ 1930년대 장로교 내에서 일어난 여권문제사건,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사건, 아빙돈 성경주석 사건 등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장로교는 보수/근본주의적인 신학 기초를 강화했고, 김재준 목사가 성경유오설을 주장한다는 혐의로 1953년 장로회 38회 총회에서 결국 목사직을 파면했던 사건은 이는 결국 장로교 분열의 불씨가 된다.⁷⁾

식일 예수 재림 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의 교리에 찬성하는 신도 및 그 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면직하거나 제명하는 등의 결정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사이비이단연구 보고집: 제1-84회 총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p. 17.

4) 이른바 새주파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지만, 종교사적으로는 한국적 천년왕국운동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새주파에 관해 연구하는 글로는 최중현,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제1권, 서울: 생각하는 백성, 1999를 확인할 것.

5) 구체적인 사건 전개에 관해서는 김홍수, 「한국기독교 이단의 역사적 고찰」, 《대학과 선교》 제12호,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2007년 6월을 참조할 것.

6)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pp. 36-43.

7) 김응호 엮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 기념집(1912-1992)』,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2, p. 124.

2) 본격적인 타자 만들기

개신교의 이단 논쟁은 한국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개신교 주요 교파들은 신학적 성향 등으로 인해 분열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 교파에 속하는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 개신교가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시 개신교인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몰두했고 이는 교회가 아닌 기도원에서, 정기 의례가 아닌 부흥회에서 경험하는 것이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등의 개신교계 신종교들이 등장했다. 박태선은 스스로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메시아로 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로운 종교 행위를 행하기도 했는데 치유를 위한 ‘안찰’과 영과 육의 정화를 위한 ‘피가름’ 등으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했다. 또한 전도관은 자급자족 공동체인 ‘신앙촌’을 건설하여 종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 조직의 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전도관은 전(前)신도의 고발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금 유용 혐의와 함께 그들의 교리가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상한 종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⁹⁾ 박태선의 전도관은 이후 수많은 분파들을 배출했고, 최근 개신교계 신종교들이 전도관의 이탈자이거나 박태선의 주장들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문선명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후 통일교)은 1954년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서울로 진출, 청년층과 엘리트 전교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다. 통일교는 주류 개신교와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킨 신흥종교였다. 기독교 대학인 이화여대, 연세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이 통일교와 연관된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개신교의 엘리트 신도 이탈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는 통일교를 주시하게 된다. 통일교는 이후 지속된 전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신도를 확보했으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문선명 교주가 “희망의 날”이란 이름으로 1972년부터 75년까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국을 돌며 했던 대규모의 순회강연은 개신교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각 지역의 개신교는 통일교 규탄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했고, 예수회 장로교 통합측은 70년대

8) 기복적 신앙 양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pp. 161-174를 참고할 것.

9) “박태선장로의 전도관 수색”, <경향신문>, 1958년 11월 28일자.

에 4번의 총회에서 통일교를 사이비종교이자 불안정한 집단이며 교단 화합에 장애를 주는 단체로 규정하고 개신교가 아님을 주장했다.¹⁰⁾ 개신교는 통일교를 ‘개신교 성서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원리를 소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제림주 우상화의 시대적 광열주의 집단’이라고 평가했다.¹¹⁾ 이후에도 주류 개신교는 통일교와 전면전을 펼쳤는데,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거나 공공연하게 통일교 산하 기업의 생산품 불매운동 등을 하면서 이단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갔다.¹²⁾

3) 사회적 합의 개념인 “이단”과 “사이비”

개신교가 개신교계 신종교들을 “이단”으로 명명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종교 내부의 문제다. 교파가 가진 신학적 입장과 다를 경우에 타 교파를 우리와 다르다고 규정하는 행위, 나와 타자를 구별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통과 이단 담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개신교는 신학적 노선이 다른 느슨한 조직체로 이루어진 종교라는 점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역사 또한 계속 새로운 조직체 탄생의 연속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개신교는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는 합의 이외에는 정통과 이단을 결정할 공인된 수단이 없는 만큼,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¹³⁾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끊임없이 이단을 양산했고, 이는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이단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이단은 사회적 합의 개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인가.

물론 전도관과 통일교에 대한 개신교의 반발이 50년대부터 지속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긴 했지만, 개신교계 신종교들이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으로,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87년)¹⁴⁾, 다

10) 강연의 내용에 관해서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문선명선생 강연선집』, 서울: 성화사, 1980을 참조할 것.

11) “기독교 범교단 지도자 협의회 성명서”, 1975년 5월 12일자, 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 종합적 자료집』 상권, 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79, pp. 274-276.

12)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러 오셨다. 왜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닌가?”, <동아일보>, 1984년 8월 14일자.

13) 알리스터 맥그라스, 홍병룡 옮김, 『Heresy: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서울: 포이에마, 2011, p. 319.

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92년)¹⁵⁾, 영생교 사건¹⁶⁾, 아가동산 사건(96년)¹⁷⁾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다. 언론 매체는 연일 감금, 구타, 암매장, 자살, 노동력 착취, 재산 갈취, 폭력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보도했고, 신종교를 빠져나온 전(前) 신도들과 이단 감별사들이 전문가로 등장하면서, 이단은 ‘잘못된 종교’이자 ‘나쁜 종교’로 각인되고 이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게 되었다.¹⁸⁾ 이중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은, 종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큰 관심을 일으켰고, 결국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거짓을 일삼는 종교라는 인식을 결정적으로 대중에게 각인시켰다.¹⁹⁾ 이후 매스컴은 개신교계 신종교들을 어김없이 종교적 스캔들로 취급했

-
- 14) 오대양집단지살사건은 1987년 오대양(五大洋) 회사의 사장과 직원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오대양의 대표였던 박순자가 종말을 주장하는 신흥종교의 교주였다고 알려진 바 있다.
- 15) 다미선교회는 이장림 목사에 의해 설립된 신흥종교로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며 예수를 믿는 의로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장림 목사는 종말과 관련한 예언서들을 다수 번역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의미하는 다미선교회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10월 28일 이후 다미선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인정해서 자진 해산했지만 1992년 11월 다시 활동을 재개했으며 지금도 소수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는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pp. 249-281을 확인할 것.
- 16) 영생교로 알려진 승리제단은 조희성 교주가 1981년에 창교했다. 승리제단은 이탈자들을 감금, 폭행, 살인, 암매장한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조희성은 사기와 횡령,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2004년 타계했다. 교주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동안 계속 되었지만, 최근에도 승리제단은 조희성 교주의 생전 영상 설교와 설교문 등을 통해서 교주 생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참조할 것. 승리제단의 역사에 관해서는 김종석,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한국의 육신영생신앙』 제3권, 서울: 청년사, 2010, pp. 191-316을 확인할 것.
- 17) 아가동산 사건은 1996년 아가동산을 탈퇴한 전 신도 30명이 아가동산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김기순 교주가 신도들을 살해, 암매장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순 교주는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아가동산을 만들고 사유 재산 및 개인 활동을 일체 금지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 사유화했다고 알려져 있다.
- 18) 이들은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천년왕국이란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인 정화(purity)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기 말의 상황 속에서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신종교의 출현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종말을 주장하던 짐 존스(Jim Jones)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과 데이빗 코레쉬(David Koresh)가 이끌던 다윗파(The Branch Davidian’s)가 있었다. 이들은 가까워진 종말에 대비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결국에는 세속과의 절대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그 결과 인민사원은 900명이 넘는 신도들의 집단 자살, 다윗파는 정부와의 무력 대치로 80명이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 신흥종교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종교성을 의심받았고 진짜가 아닌 가짜, 사이비, 이단으로 명명했다.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 개신교는 정보 제공 등의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스캔들이 넘실거리는 사회적 공분 상태에서,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사이비 이단’이란 이름하에 이해 불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개신교 내부의 타자이자 사회 내부의 타자로 낙인찍힌다. 신종교의 지도자들은 사기꾼이자 스캔들을 일으키는 말쑥꾼이며, 이를 믿고 따르는 종교인들은 단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며 안타깝게도 세뇌(Brain washing)를 당했을 뿐이라는 이단 내러티브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개신교 내부에 다양한 이단감별 주체들의 출현하면서 이러한 내러티브는 더욱 강화되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기존 개신교 교파들이 이단에 관해 논의해왔다.²⁰⁾ 교파에 소속된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리와 교회 정치에 관한 헌법을 가진 교단들은, 대부분 이단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양한 교단들은 세부적인 교리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유독 이단 문제에 관해선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한 교단이 이단을 규정하면 다른 교단들도 이단으로 지목하고 공표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단의 숫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회가 1955년에 통일교와 전도관을 사이비한 신앙 운동으로 규정한 것을 필두로, 이단은 개신교 협의체들의 공통된 관심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대표하는 보수 개신교의 협의체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이단 감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신학 교수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협의회 소속의 많은 교단들이 탈퇴하는 등의 내용을 겪었다.²¹⁾

19) “10·28 휴거는 역시 허구, 헌납재산분쟁 후유증 클 듯”, <동아일보>, 1992년 10월 29일 기사.

20) 개신교의 교파 내부에는 다양한 교단이 존재한다. 장로교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예장(고신) 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또 다른 예장(00)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감리교의 경우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예수교대한감리회(예감), 성결교는 기독교대한성결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회(예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에 관해서는 이진구,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 2012, pp. 51-87을 참조할 것.

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다락방 이단 해체에 관해 전국 신학교수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는 고소 및 고발의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후 한기총 소속 교단 및 단체들의 잇단

또한 이단 전문가들도 이단 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이단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탁명환이 이단 고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²²⁾ 이단 전문가들은 개신교계 잡지를 간행하거나 사설 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신종교 관련 스캔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는데, 주로 신종교를 잠입 취재한다든가 전(前) 신도들에게 수집한 정보들을 주류 개신교의 신도들에게 알리면서 이단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²³⁾ 이렇듯 정통 개신교 측에서는 특정 교단이나 교파의 이단 정죄와 다양한 교파의 합의, 교파 협의체의 이단 공표 및 이단 전문가들의 이단 내러티브 유포를 통해 개신교의 이단 담론을 지속하고 있다.

3. 이단 계보와 예방학

1) 이단의 계보화

개신교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들은 놀랍게도 유사한 이단 목록을 공유한다. 이단 감별 주체마다 설정한 이단 리스트들은 그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이단 감별 주체들은 서로의 이단 정죄를 정보의 근거이자 권위의 기준으로 이용하면서 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의 표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대표적인 종교 그룹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어떤 내용을 통해 이단으로 결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 그룹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탈퇴가 있었고, 탈퇴한 교단들이 새로운 협의체(한국교회연합)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22) “종교연구가 탁명환씨 피습”, <한겨레> 1992년 10월 30일자 기사, “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씨 피습死”, <매일경제> 1994년 2월 19일자 기사.

23) 이단 전문가들이 발간하는 대표적인 잡지로는 <월간 현대종교>, <교회와 신앙> 등이 있다. 이 잡지들은 현재 활동하는 이단들을 잠입 취재하거나 전(前) 신도의 증언을 여과 없이 다루는 방식을 취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요 이단 결의 표24>

성명	단체명	총회 개회연도	주요내용	결의사항
박태선	진도관(천부교)	1956	비성경적	이단
문선명	통일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1971	전통신학사상과 극단적으로 다름	사이비종교
		1975	가입금지, 관련 신문 잡지 투고 금지	불안정한 집단
		1976	교단화합, 교회사명에 장애를 줌, 단호히 경고	엄하게 처리
		1979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종교집단	기독교 아님
		1988	문선명집단 관련제품 조사하여 불매운동 전개	불매운동
		1989	통일교 관련자 철저히 조사, 색출하여 처리	조사처벌
권신찬	구원과 (기독교복음침 례회)	1974	장로교와 신앙이 맞지 않음	제명, 강단집회금지
		1983	참된 복음운동에 광신적 혼미 가져올 우려 농후	사이비
		1992	깨달음 구원회개, 죄인문제 시한부적 종말론	이단
김기동	성락교회	1987	교계혼란 초래	지침서 발행
		1988	신학적, 목회적 문제점 있음	참석금지
		1990	김기동 축사 금지, 김기동 및 유사집회 금지	집회금지
		1992	신론,기독론,계시론,창조론,인간론, 사탄론	이단
		1994	교계언론의 이단시비 재연에 대한 대책 촉구	이단임을 재확인
안상홍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2002	교리적 탈선, 성경 해석의 오류	반기독교적 이단
정명석	국제 크리스찬 연합 기독교 복음 선교회	2002	성경해석, 교회, 삼위일체, 부활, 재림	반기독교적 이단
이만희	신천지교회 (무료성경신학 원)	1995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단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1999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내세)론	이단

위의 표를 보면 정통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름의 계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친밀성’과 ‘종교적 유사성’을 특징으로 구성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친밀성이란, 이단은 이단에서 출현한다는 일반화를 말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에 의하면, 이단은 독자적으로 출현한 종교 그룹이 아니라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그룹의 일정한 영향 하에 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전도관, 통일교 등의 전(前)신도가 중심이 되는 신흥종교는 이단의 아류일 뿐이다. 이들은 모체인 이단의 문제점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혐의를 공유한다. 물론 태생적인 영향이나 신학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개신교가 이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이다. 이는 이단 정죄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단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정통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 친밀성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종교적 유사성이다.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과 신비주의적인 체험 및 의례 방식 등은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정통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신흥종교들은, 교주의 신비적인 종교 행위와 재림주 사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혐의는 타자 구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통의 내부 감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누구든지 이단의 종교성과 유사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단이 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일례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는 1970년대 한국 개신교 오순절운동의 주역이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주인공이었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에게 이단 혐의를 두기도 했다. 그의 삼박자 구원론은 현세와 성공, 물질을 중심으로 한 구원론이며 방언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무속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단 관련설은 조용기 목사의 공개적인 사과 서한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주류 교단의 목사들의 설교나 교리 해석에 대한 검증은 이어졌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의 내세가 있는 아담 창조와 아담의 조상에 대한 해석 등이 문제시 되었지만 윤 목사의 사과로 이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교단의 협력 차원에서 다른 교파에서 불거진 동일한 혐의를 벗게 되었고, 이단 시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단 시비에 휘말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었던 예들은 교단의 비호를 받거나 공식적인 사과로 마무리한 경우로, 대형교회 소속 목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류 개신교의 목회자들과는 달리 소규모 종교 집단들은 일방적인 이단 정죄와 이에 어떤 소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사이비이단 연구 보고집 제1-84회 총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pp. 303-304를 재구성함.

2) 이단 예방학

주류 개신교는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이단에 관한 교육을 하며 이단 예방에 골몰하고 있다.²⁵⁾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단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정통에게 있어서 이단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단은 언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옳지 못하며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재구성된 정보만이 가득할 뿐이다. 더구나 나와 우리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단은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단은 개신교가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단은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기치 하에 이단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주요 대상은 청년층이다. 주류 개신교는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종교들의 각론 및 예방법과 법률적인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신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서, 개신교 내부에 공신력 있는 국내외 대책 기관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이단 예방의 지침들이 제시되기도 한다.²⁶⁾ 이단의 피해에 관한 예방의 차원에서, 최근 개신교는 ‘신천지’와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는 일명 ‘추수꾼’ 전교 방식을 사용해 주류 개신교 신도들을 전교 대상으로 삼았기에 갈등이 첨예한 상태다. 주류 개신교는 ‘신천지 아웃’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신교계 방송인 CBS는 신천지와의 전면전을 펼치면서 주류 개신교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신천지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세세히 알려주는가 하면 신천지 관련 폐해에 관한 언론 보도를 계속 하면서 신천지를 맹렬히 공격하는 양상이다.²⁷⁾ 이렇듯 언제든지 등장해서 내 신념 기반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이단 예방학은, 결국 주류 개신교의 ‘이단 포비아(phobia)’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단은 이해나 자기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감염 가

25) 주류 개신교의 대표 격인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이단의 혐의가 포착된 종교 그룹을 연구하고 지침서를 발행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왔다. 지금까지 총회는 조용기, 권신찬, 문선명, 김기동 등에 대한 사이비 이단 지침서 발간해왔다.

26) 탁지일, 『이단』,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pp. 148-161.

27) antiscj.cbs.or.kr을 확인할 것.

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류 개신교의 반응에 관해 최근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이단들’의 반격

정통이 이단을 진술할 때, 다름이 곧 그룹, 그룹이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의식을 지니지만, 이단의 자리에서의 자기 출현의 자의식은, 다름은 곧 옳음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지평을 확보한다.²⁸⁾ 이단은 정통이 부여한 일방적인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종교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단은 치욕스러운 오명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시련이기도 하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며, 참고 견딜수록 의미화할 기회가 더 생기는 역설이 생긴다.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종교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종교에 도취된다. 경험을 의미화하는 종교의 문법을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고 다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최근 이른바 이단으로 지목된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종교적 시련을 의미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 정통의 ‘정통성’ 되묻기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며 종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인 변증으로 자세를 바꾸었다. 교리나 교단 조직이 비교적 체계화된 규모가 큰 신종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들의 공유가 가능해진 현재,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변증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홈페이지는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외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²⁹⁾ 홈페이지의 구성 내용과 이어진 각종 배너들은 신종교들의 역사와 연혁을 한눈에 보여주며 홍보하고 있으며 오해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⁰⁾ 종교

28) 정진홍, 「정통과 이단의 논의」, 《기독교사상》 33, 1989년 2월호, p. 18.

29) 대표적인 예로 통일교의 홈페이지인 www.tongilgyo.org는 통일교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30) 정명석 교주의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정명석 교주에 관한

알리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식, 웹문서, 뉴스, 블로그 등 온라인 전 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³¹⁾

이러한 적극적인 변증으로의 선회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각종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 영상을 보여주면서 종교를 알리는 가 하면, 개신교 전교의 고전적인 방식인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종교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종교다. 2007년 5월 8일 공중파 방송인 MBC의 <PD 수첩>에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을 방송한 이후, 신천지는 포교 방식을 바꾸었다. 신천지라고 알리지 않고 기존 개신교 교인들을 상대로 했던 전교 방식을 버리고, 신천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이후 개신교 의례에 직접 참석하고 목사 및 신도들에게 신천지의 책자 및 동영상을 전달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변증 방식의 변화는, 정통과 이단 담론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간 정통과 이단 논의가 이른바 정통에서만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제 이단이 적극적으로 논의의 정당성에 관해 참여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과연 누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지목하는지 묻는다.³²⁾ 또한 이른바 이단을 규정하는 주체가, 과연 정통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통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목회자 성희롱, 교회 세습, 헌금 횡령 등의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이단은 어김없이 정통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다. 정통이 이단 규정에서 제시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는 혐의가 이단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³³⁾

또한, 이단을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정통 위주의 이단 논의를 전복시킨다. 실제로 정통이 가진 이단 규정의 가장 권위 있는 근거는 성경이다. 정통이 가진 신학적 근본주의의 근거가 성경이며 이는 성서의 무오성

오해와 진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www.cgm.or.kr 참조.

31)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인 변증을 펼치는 대표적인 종교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IN의 키워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볼 것.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전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경계하는 개신교의 반응 또한 주목된다. 개신교의 대응책에 관해선 탁지일, 앞의 책, pp. 137-142을 참고할 것.

32) “신천지와 한기총, 누가 참인가?”, 신천지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www.shincheonji.kr

33) 김기동의 성락교회에 관한 이단 논의가 일부 교단 기득권자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일이었음을 폭로한 다음의 글은 정통의 이단 논의를 무화시키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용관, 『베뢰아, 16년간 감추어진 실상과 진실』, 서울: 크리스찬 신문사, 2006.

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성경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각 교파가 지정한 이단을 소위 정통 개신교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단들은 정통의 성경 해석이 과연 올바른지를 묻고 있다.³⁴⁾ 정통이 주장하는 성서 근거는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성서 권위의 정당성을 해체하고 이단들의 성서 해석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 정통 개신교의 특징을, 개신교계 신종교들도 공유하고 있다. 즉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기준이라면 오히려 이단이 더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등장한다. 신흥종교들은 특히 성서의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성서의 문자적 해석은, 기존의 보수 개신교 교파들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연 누가 더 문자적인지를 되물으면서 정통의 이단 담론이 가진 핵심을 지적한다. 정통과 이단 담론에서 보이는 이른바 이단 측의 대응은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적극적인 국외 전교

주요 개신교계 신종교들이 국내의 정통 이단 담론에 적극 가담하는 모습과 동시에,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유독 해외 교세 확장에 힘쓰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다.³⁵⁾ 화면 가득 종교 권위자의 해외 방문이 얼마나 성황리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해외 신도들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정통과 이단의 논의에서 자유로운 해외로 눈을 돌려 교세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정통 개신교의 이단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통일교는 일찍이 해외 전교에 집중했고 많은 신도들을 확보했다. 세계선교본부를 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에 이어진 적극적인 전교 활동으로 교세를 확장한 통일교는 현재 유니피케이션 처치(Unification Church)로 알려져 있으며 개신교계 신종교로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인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통일교의 국외 전교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전교활

34) “신천지와 개신교의 믿음과 지식”, 신천지 홈페이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가요?”, 네이버 지식IN.

35)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기쁜소식선교회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

동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주로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이거나 해당 지역의 권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세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³⁶⁾

한편 신자들은 단기 해외 선교 활동 등을 벌이면서 해외 교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기존 개신교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단기 해외 선교가 제3세계 지역의 오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기존의 해외 선교 지역을 방문하여 해외 신도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새로운 정통 만들기

최근의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새로운 정통을 만드는 방향을 보인다. 개신교가 제기하는 이단 혐의에 관해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다. 이들은 개신교의 이단 논의에 맞대응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앞서 살펴본 적극적인 정통 비판과 해외 선교 등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정통의 이단 논의가 개신교계 신종교들의 본격적인 제도화, 교리화의 행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일 수도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종교 그룹들이다. 실제로 현재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은, 기존 군소 개신교 교파보다 더 월등한 국내 및 국외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의 구별하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기존 개신교의 이단 시비가 불거지고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 될수록 공동체는 더욱 결속하기 때문에 고통의 해석학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총회 등의 조직을 결성하면서 해당 조직의 체계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 세력의 확장, 힘의 축적, 제도와 조직화를 통해서 주류 중심 이단 담론의 탈피를 꿈꾸고 있다.

한편 이와 조금 다르게 주류 개신교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성결교단 소속이었던 이재록의 만민중앙성결교회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라는 평가 하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장로교 통합 교단 등에서 이단 정죄를

36) 탁지일은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이 한국 교회의 선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개신교계 신종교들의 선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파악한다. 탁지일, 앞의 책, p. 124.

받았지만,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라는 독자 교단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³⁷⁾ 최근 만민중앙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단 혐의를 받았던 이재록 목사의 재림주 및 성신 강림 등에 관한 주장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류의 보수적 개신교 신조 등이 눈에 띈다.³⁸⁾ 성결교라는 기존 개신교 교파에 속하여 정통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현대 한국 개신교의 정통 이단 담론의 전개 과정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주류 개신교는 전교 초기부터 미신 개념으로 타종교와의 구별을 시도했고, 이단 개념으로 종교 내부의 타자 만들기를 지속해왔다.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신학적 교리와 실천적 행위 모두에서 새로운 종교성을 보였지만, 주류 개신교는 이를 비성서적 해석과 신비주의적인 행위로 단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주류 개신교의 판단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개신교계 신종교들은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주류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을 문제 삼고, 국내를 넘어선 해외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조직화 및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정통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과 이단,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문제는, 객관적인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종교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 체험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주장과 종교가 반사회적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객관적인 연구는 어느 한 입장의 옹호 논리로 둔갑해버린다.³⁹⁾ 특정한 종교현상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인 발언도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종교학의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그 유명한 주장대로, “인간과 관련된 것치고 낯선 것은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37) 1993년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개신교의 교파수(교파 내 교단 포함)는 168개에 이른다.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 241에서 재인용.

38) 만민중앙성결교회 홈페이지 www.manmin.or.kr를 확인할 것.

39) 조현범, “사이비종교론에 대한 성찰: 진짜 종교, 가짜 종교”, <한국종교연구회보>5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1994, p. 4.

시급한 종교학적 명제가 아닐까 한다.⁴⁰⁾

아울러 타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정통과 이단은 서로에게 비난과 지탄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 성찰의 대상이기도 하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교 다원 문화의 현실 속에서 종교 단원 의식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일 뿐이다. 자기 정당화의 논리로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결국 공허한 자기 고백이며 스스로를 윤패시키고 만다.⁴¹⁾ 정통과 이단 담론은, 결국 한국의 주류 개신교 및 개신교계 신종교의 암울한 자화상이자 미래상이 아닌지, 이제 개신교 전반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한국 그리스도교의 정통과 이단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개신교와 개신교계 신종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스도교의 전반적인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면, 최근 천주교에서 등장하는 나주성모동산 관련 현상들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정통, 이단, 권위, 개신교계 신종교, 역사적 친화성, 종교적 유사성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7일

40) 조너선 Z. 스미스 지음, 장석만 옮김, 『종교상상하기: 바빌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서울: 청년사, 2013, p. 263.

41) 정진홍, 앞의 글, p. 26.

참고문헌

1) 국내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2) 국내 단행본

김응호 엮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 기념집(1912-1992)』,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2.

김종석,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한국의 육신영생신앙』 제3권, 서울: 청년사, 2010.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우리시대의 이단들』, 서울: 두란노서원, 200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사이비이단 연구 보고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이대복, 『한국기독교 120년사, 성경에 비추어 본 이단종합연구』, 서울: 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 2008.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 서울: 집문당, 1986.

정행업,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논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최중현,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제1권, 서울: 생각하는 백성, 1999.

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 종합적 자료편』 상권, 서울: 국제종교연구소, 1979.

-----,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 성서적 분석 비판편』 하권, 서울: 국제종교연구소, 1979.

탁지일, 『이단』,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현대종교 편집국 엮음, 『이단 바로알기』, 서울: 월간현대종교, 2011.
- 알리스터 맥그라스, 홍병룡 옮김, 『Heresy: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서울: 포이에마, 2011.
- 조너선 Z. 스미스, 장석만 옮김, 『종교 상상하기: 바빌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서울: 청년사, 2013.

3) 국내 논문

- 김홍수, 「한국 기독교 이단의 역사적 고찰」, 《대학과 선교》 제12호,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2007년 6월, pp. 9-37.
- , 「이단 또는 한국적 기독교: 통일교·전도관·용문산기도원의 종교운동」, 《종교와 문화》 제2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pp. 15-36.
- 윤중훈, 「이단 종파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이단 구별 방법」, 《역사신학논총》 18집,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9년, pp. 148-185.
- 이진구, 「한국종교사의 자리에서 본 기독교계 신종교」, 《기독교사상》 674, 2012년 11월호, pp. 10-23.
- ,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pp. 51-83.
- 정진홍, 「정통과 이단 논의」, 《기독교사상》 33, 1989년 2월호, pp. 14-26.
- 조현범, 「사이비종교론에 대한 성찰: 진짜 종교, 가짜 종교」, 《한국종교연구회보》 5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1994, pp. 4-10.

The Discourses of Orthodoxy and Heresy in Modern Korean Christianity

Lee You Na (Ko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iscourses of orthodoxy and heresy in modern Korean Christianity, particularly in Protestantism,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Protestantism agrees on the authority of the Bible but it has no single standard to decide orthodoxy and heresy, which has resulted in the rise of many denomination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However,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has been making continuous arguments about heresy, and Korean society has accepted the decisions made by the Protestant Church. Thus, heresy is not merely a religious idea but a social idea.

Although various organizations distinguish heresy from orthodoxy in different ways, they have a common list of heretical groups. The genealogy of heresy is based on historical affinity and religious similarity; the former means the generalization that heresy comes from heresy, and the latter means that heretical groups share similar dogmatic explanations and mystical experiences with each other. Therefore, many Protestant churches educate their members on the dangers of heresy in order to protect their members against heresy and to prevent heresy from their churches. For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heresy is not an object of reflection but the infectious virus causing diseases.

Meanwhile, in the place of heretics, “heresy” is a disgraceful title but it is also a meaningful ordeal in terms of religion. New religions named heresy by Protestants use strategies to remove their notoriety. For example,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authority of orthodoxy with

powerful demonstrations. They focus on the overseas missionary work because their propagation is less restricted in some foreign countries than in Korea. Thus, they try to have systematic organizations of authority like the “orthodox” Protestantism.

Key Words: Orthodoxy, Heresy, Protestantism, New Religion, Historical Affinity, Religious Similarity, Authority